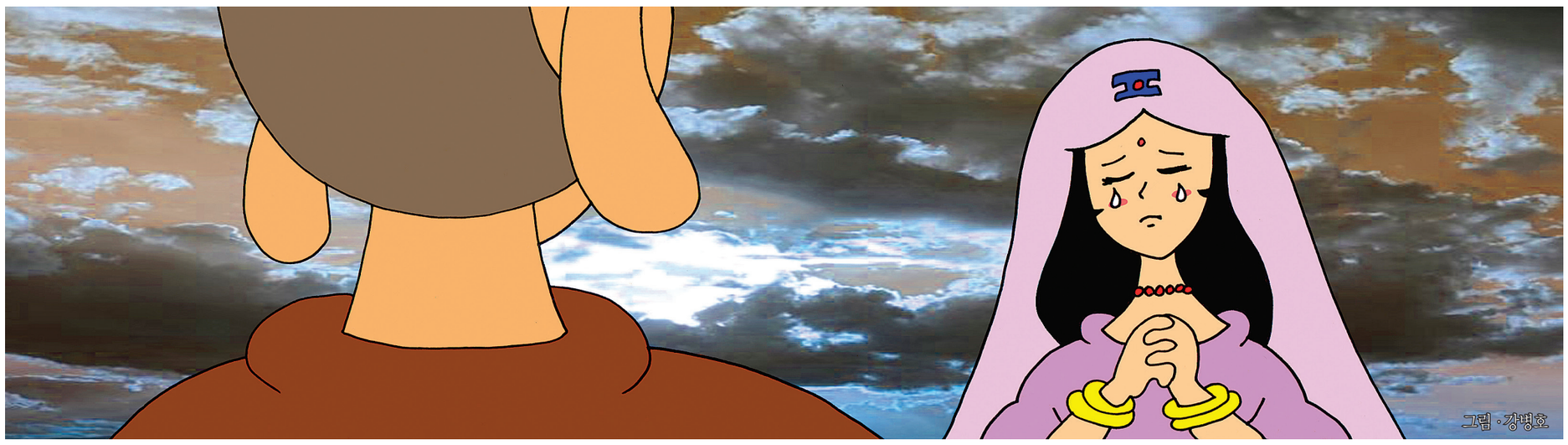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22 라후라 출가와 야수다라



▶ 한줄요약
야수다라가 아들 라후라의 출가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비하라면서 어미에게서 아들을 여의게 하는 것이 자비냐"며 목련과 논쟁을 펼친다. 이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야수다라에게 전생을 보여줬고, 결국 야수다라는 라후라를 출가시키기 위해 목련에게 보낸다.

아들 보내는 母情 애닳기만 하니…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오늘 야수다라의 심금을 울리는 이 장면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야수다라의 진솔하고 논리 정연한 반박에 목련과 시어머니 대애도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지금 상황은 라후라를 출가시키게 데려오라는 석가모니의 명을 받은 목련이 대애도를 찾아가 설득하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수다라의 대답은 이러하다.

야수다라의 완판승

야수다라께서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 삼으셨을 때 내가 태자를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된 지 3년이 못 차서 세간을 버리시고 성을 넘어 도망가서 마부 차닉이를 돌려 보내며 맹세하기를 '내가 도리를 이루어야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냥꾼이 입는 사슴가죽 옷을 입고 미친 사람같이 산골짜기에 숨어 계시면서 여섯 해를 고행하여 부처가 되셨지만 나라에 돌아오셔도 나를 친근하게 아니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시고 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나는 어버이 여의고 시집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되 우리 모자 외롭고 고달파 인생의 즐거운 뜻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이 무거운 것이므로 손수 죽지 못하고 서럽고 애달픈 뜻을 머금고 가까스로 살아가니 비록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서러운 인생이 어디 또 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니 가족(眷屬)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 권속(眷屬)은 아내며 자식, 종, 집안사람을 모두 권속이라 한다.

싯달타 태자께서 도리 이루시어 스스로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거늘 이제 도리어 남의 어미와 아들을 여의게 하시니 슬픈 일 중에도 이별 같은 것이 없거니와 이로 헤아려 보건대 무슨 자비가 있는 것입니까." 이별은 여의는 것이다.

야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돌아가서 세존께 내 뜻을 잘 말씀하십시오."

일백삼십구장

목련의 신통력을 야수의 눈 앞에 보이고 영세쾌락(永世快樂)을 힘껏 말씀드려도

야수의 자비심에는 먼 앞날을 헤아림이 없으시므로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 〈월인51a〉

일백사십장

아내가 되어서 싯달타 태자를 하늘 같이 섬겼더니 3년이 못 되어 세간 버리고 출가하시니

차닉이 돌려 보내시며 맹세하시되 도리 이루어 돌아오겠다 하시니

야수의 말 중에 조목조목 어디 한 군데 틀린 말이 있는가. 〈월인천강지곡〉에서도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 라고 하고 있다. 출가하여 도리를 이루면 돌아온다더니 길가는 행인처럼 대하고 자비를 하라고 설하면서 아내에게는 무자비한 남편이 무슨 부처라 하시는가. 아무리 신통제일의 제자 목건련이라 하더라도 야수다라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본전도 못 찾은 목련

그때 목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금 야수다라께 말씀을 드려도 야수다라 조금도 듣지 않으셨다. 목련이 정반왕께 돌아가서 이 사연을 사뢰었다. 정반왕이 부인 대애도를 불러 말씀하셨다. 〈釋詳6:6b〉

"야수다라는 여인이라 불교의 도리(佛法)를 모르기 때문에 애착으로 얽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쓸어버리지 못하니 대애도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이르시오."

대애도(大愛道)께서 오백명의 청의를 데리고 야수께 가서 갖은 방편으로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셨다. 야수다라가 오히려 듣지 아니 하시고 시어머니 대애도께 말씀드렸다.

"제가 결혼 전 우리 집에 있을 적에 나를 두고 여덟 나라의 왕이 서로 겨루기로 경쟁하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은 석가 태자의 재주가 뛰어나셨기(奇特) 때문입니다. 기(奇)는 신기한 것이요 특(特)은 다른 무리에서 따로이 다른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자께 시집가게 하시고 시어머님 대애도부인께서 며느리 얻으심은 우리 둘이 온화히 살아 세세생생 천만세에 대대로 자손이 이어감을 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인 태자가 이미 출가하여 나가시고 또 손자 라후라를 출가시켜서 이제 나라 이을 자손을

> "아들 여의는 것이 자비냐" 반박
> 라후라의 출가 막는 어머니 모습
> 〈석보상절〉 명장면… 묘사 압권
> 이내 부처님 나타나 전생 보이자
> 야수다라, 결국 라후라를 보낸다

끊어지게 하시니 어머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애도께서 들으시고 한 말씀도 못하고 계셨다.

야수다라의 말솜씨야말로 어떠한가. 기실 이것은 야수다라 평생에 담아두었던 속마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여성이 결혼하자마자 출가에 뜻을 두고 기어이 떠나버린 남편을 이해할 것인가. 게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는 부처가 되더니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임신한 채 불구덩이 속을 뛰어들기까지 하며 지켜낸 금쪽같은 아들을 데려간다니…. 인간적인 면모로 보자면 석가모니는 최소한 야수다라에게 모질디 모진 남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야수다라가 불교의 법을 모르는 아녀자라서 라후라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 왕실 가족 중 가장 용기있고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여성이라 그에 맞설 지원군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통제일의 목련도 시부모도 이기지 못한 야수다라의 완판승이다. 이것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일백사십일장

태자 사슴가죽(鹿皮) 옷 입으시고 산골에서 고행하시어 6년만에 돌아오시되

은혜를 잊으시고 친근히 아니 하시고 길가는 행인(路人)같이 여기시니

일백사십이장

나(야수)는 어버이 여의고 시집와서 남에게 의지하고 살되 우리 모자 고달프게 사노이다

어찌 인생을 즐기리이까, 죽음을 기다리노니 목숨이 무거워 손수 죽지 못 하노이다. 〈월인52a〉

일백사십삼장

서럽고 애달픈 마음이여 누구와 비교하리오 사람일지라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생이 이러하거늘 아들마저 여의리이까, 세존의 아내 되어 서러움이 이러할까

일백사십사장

서러운 일 가운데 이별이 가장 심하니 어미와 아들의 이별이 어떠하리

불교의 도리를 이루시어 자비를 펴시나니 이런 일이 무슨 자비이신가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배우자 야수다라를 석가모니 부처님이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자신이 등장한다.

세존의 등장

그때 세존이 즉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한 화인(化人)을 보내셨다. 화인은 세존의 신통력으로 부처의 모습 되게 하신 사람이다. 허공에서 야수께 말씀하셨다.

"그대 지나간 전생 시절에 맹세하고 발원한 일을 기억하는가 못하는가. 나 석가여래가 그때 보살의 도리를 하노라 하여 그대 손에 오백 닢 은화로 다섯 줄기 연화를 사서 연등불(정광불)께 바칠 때, 그대가 발원을 하되 세세생생에 아내(妻眷)가 되고자 하거늘 내가 말하였다.

'내가 보살이 되어서 겁겁에 발원행하겠노라 하여 일체 보시를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어든 그대가 나의 말대로 다 듣겠는가' 하였다.

그대가 맹세를 하되 '세세생생에 태아나는 곳마다 나라며, 성이며 자식이며 내 몸에 이르기까지 보시하여도 그대가 하는 대로 좇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다.' 하였다. 이제 어찌 라후라를 아끼는가."

야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마음이 훤히 밝아지셔서 전생의 일이 어제 본 듯 하였다. 애착으로 얽힌 마음이 다 스러지거늘 목련이를 불러 참회하시고 라후라의 손을 잡아서 목련이에게 맡기시고 울며 이별하셨다.

참(懺)은 '차마' 하는 것이니 '내 잘못을 차마 버리소서' 하는 뜻이요 회(悔)는 뉘우친다는 것이니 과거의 일을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백사십오장

정반왕 말씀을 대애도께서 전하시되 야수의 말듣고 오히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계시더니

세존의 말씀을 화인(化人)이 대신 말씀하시거늘 야수 즉시 알아듣고 눈물로 여의시니

차마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참회' 를 찾아보니 산스크리트 '크샤마(kṣam, 懺摩)' 의 음역으로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인(忍)' 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며, 회(悔)도 크샤마의 의역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차마' 는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당시 표현인 그곳이 '참하꿈엔들 잊힐리야' 의 '참하' 로 읽어야 그 애틋한 정서를 조금이나마 음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토록 논리정연하던 야수다라도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생에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는가' 라는 한 마디에 깨끗이 승복을 한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는가' 라고 후회해봤자 어제처럼 선명해진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뉘우치며 라후라의 손을 목련에게 쥐어준다. 하염없이 울며 여읠 수밖에.

어찌 2,600년 전의 모자의 이별이 이토록 눈앞에 보듯 슬플까. 이것이 훈민정음 반포한지 10개월 만에 제작된 〈석보상절〉의 대사이다. 20대에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던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어 두 배로 먹먹하다. 이 순간 또한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